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경남교육 이야기

장학월보

Vol 255 2014 / 5



소중한 사람

글 밀양 송진초등학교 교사 최용규

세월이 가도
항시 그 자리에
지킴이처럼 서 있는
마음속에 기둥 하나

처음처럼
설레임으로
그리움으로
좋은 이미지 한껏 담은 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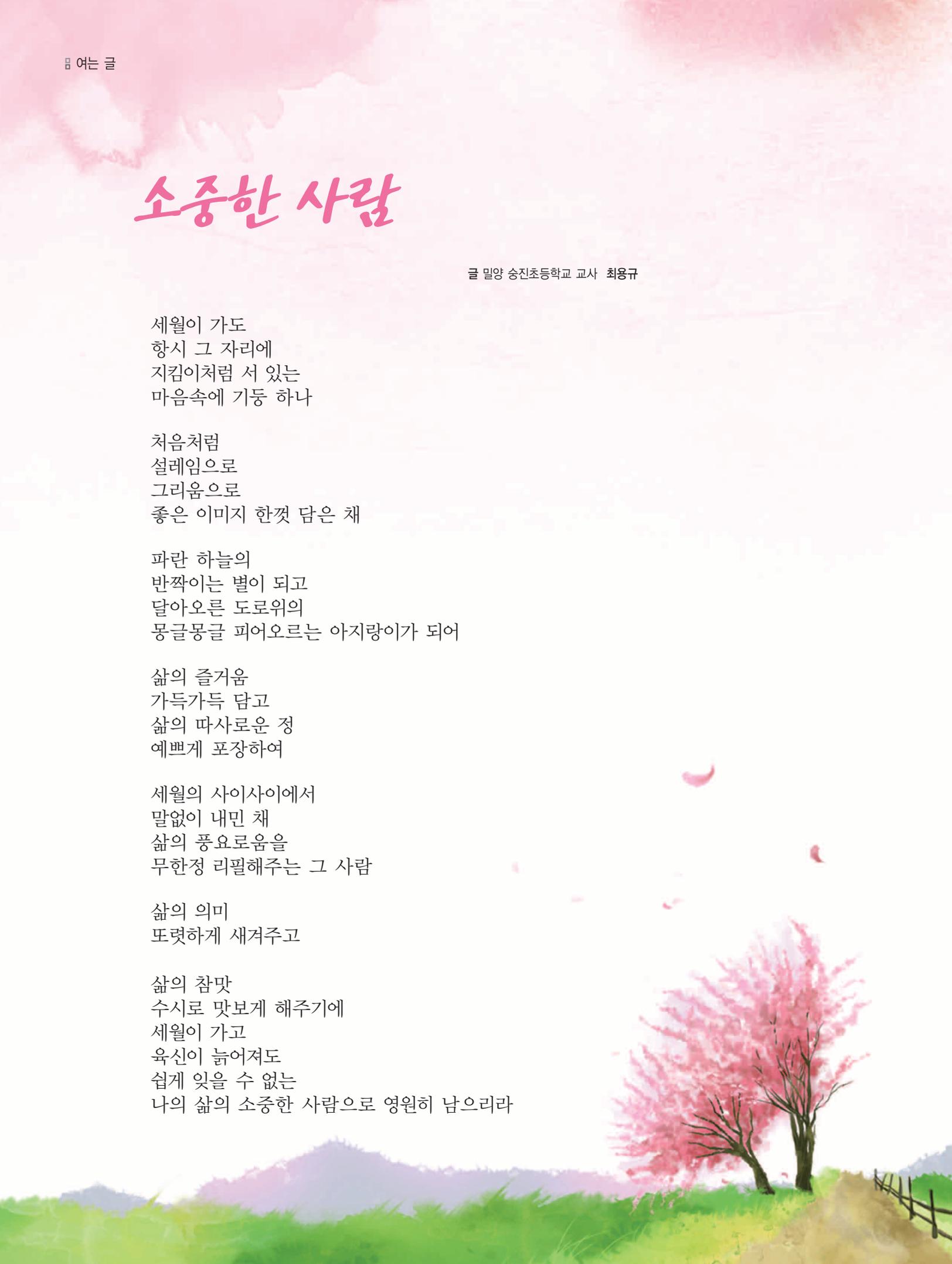
파란 하늘의
반짝이는 별이 되고
달아오른 도로위의
몽글몽글 피어오르는 아지랑이가 되어

삶의 즐거움
가득가득 담고
삶의 따사로운 정
예쁘게 포장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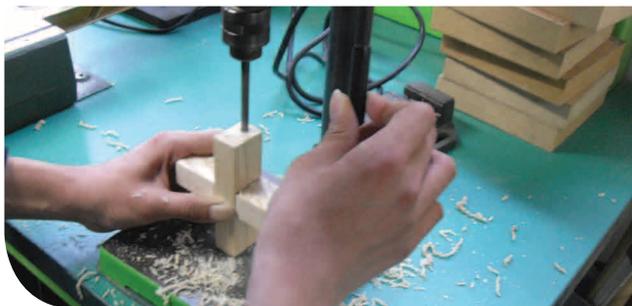
세월의 사이사이에서
말없이 내민 채
삶의 풍요로움을
무한정 리필해주는 그 사람

삶의 의미
또렷하게 새겨주고

삶의 참맛
수시로 맛보게 해주기에
세월이 가고
욕신이 늙어져도
쉽게 잊을 수 없는
나의 삶의 소중한 사람으로 영원히 남으리라



Contents



04 권두언

잊어서는 안 되는 슬픔, 교육으로 되새기겠습니다 / 교육감

06 생생현장

08 교육칼럼

인연과 깨달음 / 이현락

09 특별기획 / 폭력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

2014. 학교폭력 예방교육 계획 / 김경미
Stop bullying, Start beauty / 전희정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 / 백종태
학교폭력은「마음다스리기 프로그램」으로 / 신홍재

18 교육정보

교육기부 / 장태분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 방안 / 성수민

20 좋은 수업

복식학급 학생들의 개별화 학습을 통한 신체운동능력 신장 / 이승운
추체형 역사학습활동으로 떠나는 시간 여행 / 신영옥

24 함께하는 학교

제산초 「토의·토론으로 가꾸는 명품 제산교육」 / 이종향
마산고 「싱-Sing 교육으로 펼쳐는 교육 미래」 / 안형호
주석초 「놀이로 오고 싶은 학교 만들기」 / 박성호

31 이달의 교사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학생의 역사를 기록하는 수업 만들기 / 박승훈

33 삶의 향기

사랑하는 나의 스승님 / 김일태
원칙을 지키는 안전한 사회를 꿈꾸며 / 김남수
흔들리지 않고 피어나는 마흔은 없다 / 박민정

36 동아리 탐방

전통 장부짜임을 적용한 과학완구 발명동아리 / 황진기

38 행복한 책 읽기

39 지상갤러리

曉坐 / 차일수



표지사진 "소망"
윤정민(용호초등학교 교사)

장학월보는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교육 전문지로서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소망합니다.

- 6월호 모집 기간 : 2014년 5월 19일까지
- 모집내용 : 함께하는 학교, 좋은수업, 삶의향기(시, 수필, 독후감 등), 등 분량 : A4 1~2매 내외
- 원고보내는 곳 : <http://lms.gnedu.net>-장학월보커뮤니티
- ※ 내려받기 :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 초등교육과 ▶ 부서사업 ▶ 보고서 / 간행물

2014년 5월 1일 발행

발행인 | 경상남도교육감 총괄 | 초등교육과 과장 이정식 기획 | 초등장학담당장학관 심광보

편집주간 | 초등교육과 장학사 이병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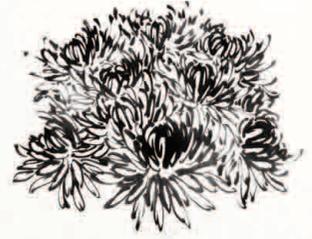
편집위원 | 김정애, 김강희, 이우경, 정호찬, 박선정 인쇄 | 문성인쇄사 (055)282-9922

잊어서는 안 되는 슬픔, 교훈으로 되새기겠습니다

해마다 이때쯤이면 나이를 들어감에도 몸속에서는 어린 날 성장을 향해 솟구치던 그 힘을 느끼곤 합니다. 애뜻한 연둣빛 신록이 날마다 날마다 재잘거리면서 녹음으로 짙어져가는 변화가 아이들과 함께 어른에게도 성장의 기쁨을 느끼게 하는 고마운 오월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신비한 이 계절이 이제 우리에게 잊히지 않을 슬프고도 아픈 기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객선 세월호의 침몰로 바다에서 고인이 된 승객들, 그들 중의 대부분이 수학여행을 가던 어린 학생들이었고 말없이 이생을 등지기에는 너무도 아쉬운 분들이었습니다. 희생자 가족은 물론 온 나라가 웃음을 잃고 비통에 젖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린 죽음 앞에서 더더욱 가슴 미어지는 아픔을 느낍니다. 누구나 부모의 마음으로 참척의 고통을 함께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정작 어린 영혼들을 한참이나 부모의 가슴에 안겨주지 못한 채 차가운 바다에서 떨게 했습니다. 얼마나 춥고 얼마나 두려웠을까를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이 기막히고 어처구니없는 일을 세월호가 아닌 어른들이 만들었다는 사실에 대해 이제 우리는 아이들 앞에 고개를 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7천 톤에 가까운 거대한 배를 삼키고 수많은 생명과 어린 목숨마저도 꺾어버린 진도 앞바다는 어제를 잊은 듯 말이 없습니다. 팽목항도, TV도, 신문도, 우리네 기억도 아무 일 없다는 듯 일렁이는 진도 앞바다의 물결처럼 그렇게 함께 잊어가는 것이 아닌지 두려워집니다. 많은 사람이 행여 세월처럼 세월호의 아픔도 따라 흘러보내지는 않을까 더 걱정합니다.



우리는 세월호가 침몰하는 순간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지켜볼 수 밖에 없었던 그 순간 속절없이 배는 물속으로 빨려들었지만, 의무와 책임을 저버린 숨겨졌던 부도덕과 비윤리,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허락되는 비뚤어진 우리 사회의 이면은 수면을 차고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늘 법 이전에 도덕과 윤리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바탕이라고 배우고 가르쳐왔습니다. 물리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은 단기간에 제정과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도덕과 윤리는 의식입니다. 당연히 오랜 시간 동안의 반복된 훈련과 마음가짐으로 축적되는 소양입니다.

사고 발생 이후 우리는 늘 매뉴얼 준수 여부를 따지는 규정을 문제 해결의 우선순위에 둡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인명을 중시하고 약자를 우선해서 보호하면서 자기 직분에서의 책임을 다하는 도덕과 윤리의식이 선행되면 법과 규정, 매뉴얼은 문제 해결의 부차적 수단이 될 것입니다.

아이들과 여자들을 먼저 구조하고 병사들과 함께 침몰한 영국 버큰헤이드호 선장의 이야기는 원칙이 바로 서고 지켜지는 선진국의 일상입니다.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대한민국의 급속한 성장이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렸던 속도가 이루어낸 결과라면 이제라도 과속을 줄이면서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야겠습니다.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오늘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가 참으로 소중하게 길러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봅시다.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후 달포가 지나면서 온 국민의 기대가 절망으로 바뀌고 희생자들 또한 영면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우리 도내에서도 학교폭력으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모두 모두 지켜주지 못한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으로 다시는 이런 슬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빌면서 희생자 가족들에게도 애도를 표합니다.

2014. 5.

경 상 남 도 교 육 감

1



2



생생현장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 하는 교육



4

- ① 학교장터 활성화 교육(양산교육지원청)
- ② 물사랑 교육사업 MOU체결(진주교육지원청)
- ③ 과학의 달 기획전시회(경상남도과학교육원)
- ④ 새 교육가족 하동사랑 교육 기행(하동교육지원청)

3

- 5 체감 학원비 학부모 모니터링원 연수(통영교육지원청)
- 6 병영체험기(밀양교육지원청)
- 7 학교운영위원회 연수 개최(남해교육지원청)
- 8 토요일가족체험 운영(경상남도유아체험교육원)
- 9 만지락 꿈지락 도서관 행사(거창도서관)
- 10 과학올림픽탐구대회(창녕교육지원청)
- 11 위키 어린이 기자단 발대식(의령교육지원청)



인연과 깨달음



글 경상남도교육청 예산과장 이현락

인연(因緣)이란 씨앗인 ‘인(因)’과 조건인 ‘연(緣)’이 더해진 말이다. 세상 만물이 인과 연이 맺어진 결과이며, 갖은 일 또한 그렇다. 수소와 산소가 스치며 물이 되고, 비를 맞아 싹이 트며, 바람에 꽃잎이 이운다.

인연이란 만남이 맺는 관계이다. 눈이 마주친 남녀의 연분이 그렇고, 하필이면 함께 일을 하게 된 관계가 그렇고, 수없이 마주쳤다 사라져간 모든 일들도 만남이 만들어 낸 것들이다.

만남은 그래서 하나의 현상일 뿐이다. 인연도 처음에는 물리적인 것에 붙여진 말일 따름이었다. 사람이 살면서 만나는 일도 사실은 물리적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꽃 핀 나무 아래를 술한 사람들이 지나면서 꽃과 늘 만난다. 그런데 그 만남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이들은 꽃 그늘 아래 잠시 머무르기도 한다. 만남과 만남의 의미는 이렇게 다르다. 어떤 만남이 아름다운 것일까? 아름다운 만남이란 베풀고 깨달음을 준 것이 아닐까 싶다.

나는 아직 마음이 넓지 못하여 딱히 베풀었던 일을 손꼽아 볼 수 없지만, 베풀고 같은 가치로움을 생각하게 만든 만남, 깨달음을 준 만남은 더러 있어 생각해 보면 참 다행인 것 같다

거경궁리(居敬窮理)란 말이 있다. 물론 나중에 안 말이다. ‘경(敬)’의 어원과 ‘성(誠)’의 참뜻에 대한 그 분의 말씀을 듣고 난 한참 뒤의 일이다. 공경의 뜻을 어렵듯이 알고만 있다가, 마음을 잡도리하여 분란을 가라앉히고 삼가는 일이 ‘경(敬)’이요, 사물의 이치를 널리 알리고 온 정성을 다해 게으르지 않는 것이 ‘성(誠)’이라는 말씀, 사물과 현상을 대하는 태도를 일컫는 것이었지만, 그 말씀을 들으며 작은 깨달음을 얻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다. 오래도록 마음에 남아 있는 것은 내 삶이 여전히 그 말씀의 뜻 언저리를 맴돌고 있다는 뜻이리라. 그 분과의 만남은 이렇게 말씀으로 만난 것이었지만, 깊은 깨달음을 준 만남이었다.

우리는 만남과 헤어짐을 현상적으로만 보려 한다. 손에 닿아야만 관계로 안다. 얼굴을 모르는 사람과의 만남, 고인과의 만남이 오히려 더 큰 깨달음을 얻게 하기도 한다. 말로 만난 인연이라도 연분보다 깊을 수 있다.

나에게 깨달음을 안긴 몇몇 인연들, 우연이든 필연이든 마주치게 되었던 그 소중한 만남들이 친분으로 맺어진 것이 아니다. 어쩌면 그 분들은 그 만남을 기억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 는 진주알처럼 박혀 반짝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나는 복덕이 모자란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아직도 그 축복을 받고 있으니까. 가야할 길이 보이는 듯 하나까.



특별기획

폭력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

경남교육은 안전한 학교 환경을 위한 시스템구축, 중도탈락학생 예방을 위한 기반조성, 현장중심의 학교폭력 예방 지원, 체험중심의 감성교육을 통해 폭력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인성이 진정한 실력! 학교폭력을 넘어 인성교육으로! 2014. 학교폭력 예방교육 계획

글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안전과장 김경미

1. 학교현장의 다양한 자율적 예방 활동 지원 강화

- ◆ 지역의 학교폭력 실태를 분석하여 학교폭력의 유형별, 지역별, 학교급별 맞춤형 지원 및 관리 대책 수립
 - ▷ 경남교육청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 계획 수립
 - ▷ 지역교육청별 학교폭력 대책 실천중심 시행 계획 수립
 - ▷ 학교급별 맞춤형 지원 및 관리 대책 수립

- ◆ 학교급별 맞춤형 대책 수립 시 유의사항

내용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갈등 파악	• 학부모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적극 실시하여 자녀의 갈등, 고민 파악	• 또래조정·상담·자치법정 등 학생 자치활동을 통해 친구의 갈등, 고민 파악
예방 교육	• 학교폭력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정립 • 학교폭력 "멈춰" 프로그램 등 학교폭력에 방관하지 않는 인식 형성	• 학교폭력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고 학교폭력 목격 시 방관하지 않는 인식 확립 • 여학생의 경우 집단따돌림,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공감 교육 강화 • 남학생의 경우 우발적 폭력 예방을 위한 분노조절 교육 강화
학생 보호	• 방과 후 학생보호활동 강화 • U-안심알리미(긴급신고,위치전송)보급	• 교내순찰 및 학생보호활동 강화 • 또래보호 등 다양한 또래활동 확대

【단위학교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학교폭력의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학교의 장, 교감, 교사 및 직원의 역할과 책임
- 학생 상담·지도 및 보호
- 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학생은 연간 10시간 이상, 학부모 학기별 1회이상)
- 교직원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교직원 학기별 1회 이상 예방교육 실시)
- 학생자치활동 등 학생들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 학부모 등 보호자와 지역사회 인사 등 자원봉사자의 활용
- 경찰관서 등 공공기관과 지역사회 단체 등과의 협조 강화
- 안전한 학교교육환경 조성 등

2. 학생 눈높이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교육

- ◆ 연극, 뮤지컬 등 문화체험형 예방교육 확대
 - ▷ 학생뮤지컬 운영학교(11교), 학생뮤지컬 제작 발표회(창원, 진주)
 - ▷ 동아리 활동(연극, 뮤지컬 등)의 활성화로 학교폭력예방에 전학생 참여 기회 제공
- ◆ 학생들의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학기 초에 입학식, 오리엔테이션을 활용하여 예방교육, 서약식 등 적극 실시

- ◆ 학교 요청에 따라 ‘찾아가는 예방교육’ 실시
- ◆ 예방교육 내실화를 위해 지역별로 학교폭력 유형별 ‘예방교육 전문강사’ 육성·관리
- ◆ 가정의 교육적 기능 회복을 위해 맞춤형 학부모교육(예비학부모 포함)을 강화하고 국가·공공기관 직장교육 시 3대 폭력(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

3. ‘꿈나르미보안관제’ 운영으로 학교별 교내·외 순찰 활동 강화

- ◆ 꿈나르미 보안관 구성
 - ▷ 학교 : 학교봉사활동 단체(보이스카웃, 걸스카웃, 4H, 청소년연맹, RCY, 해양소년단 등) 중심으로 구성하며, 교사, 배움터지킴이, 학생상담자원봉사자, 학부모 도우미 참여
 - ▷ 교육지원청 : 지역교육청-경찰서(지구대)-보호관찰소-민간기관(상담센터, 동반자, 청년회의소, 지역자율방법대)-교외생활선도협의회
 - ▷ 도교육청 : 경남지방경찰청-경남도청-경남도의회-경남지방검찰청
 - 민간기관 : 청소년폭력예방재단(경남지부, 진주사천지부)-경상남도청소년지원본부
- ◆ ‘꿈나르미보안관제’ 관련 단체와 MOU체결
- ◆ 전 학교 ‘꿈나르미보안관제’ 학교 단위의 발대식
 - ▷ 전교생 모임에서 꿈나르미 보안관 임명장 수여 및 조기 전달
 - ▷ 학부모 및 봉사단체는 학부모 총회시 전달

4. 언어문화 개선을 통한 언어폭력 예방

- ◆ 언어폭력도 학교폭력임을 명확하게 교육
 - ▷ 학교급별 교육과정과 연계한 바른 언어 사용에 대한 교육 실시
 - ▷ 학생 언어문화개선 연구·선도학교 컨설팅 실시
 - ▷ 학교 언어문화개선을 위한 교육용 자료 활용
- ◆ 바른 언어사용 관련 교사용 훈화자료, 언어습관 자가진단표 등을 보급하여 교내 바른 언어 사용 강화
 - ▷ 학생·교사·학부모용 언어습관 자가진단표 및 대상별 맞춤형 교육 매뉴얼 보급
 - ▷ 바람직한 학생 언어, 사랑의 교사 언어 활용 안내
 - ▷ 학생·교사·학부모용 언어습관 자가진단표 및 맞춤형 교육 매뉴얼 활용
 - ▷ 타인의 언어 습관을 관찰하는 칭찬릴레이 실시

5. 사이버폭력 신고 및 예방교육 활성화

- ◆ 학생들이 SNS를 통한 사이버폭력 피해를 받는 경우 학교전담경찰관, 교내 상담인력 등을 대화방으로 초대하여 즉시 도움 요청
 - ▷ 사이버 폭력 발생시 전담기구에 신고하여 학교폭력으로 조치 지도
 - ▷ 사이버 폭력 유형별 대처 매뉴얼 제작·보급
 - ▷ 사이버폭력 발생 시 전담기구에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체계 구축

6. 성폭력예방 및 피해학생 보호·치유 강화

- ◆ 성교육 강화
 - ▷ 학교별 자체 성교육 연간계획 수립 및 담당교사 지정 운영
 - ▷ 초·중·고등학교 15시간(성폭력 예방교육 3시간 포함)이상 의무 실시
 - ▷ 교직원 대상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 예방교육 강화
- ◆ 청소년 성문화 센터 등의 전문기관과 연계, 성폭력 가해학생 특별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 운영 마련
 - ▷ 국립부곡병원 활용 성폭력 가해학생 특별교육 및 치료지원
- ◆ 도교육청 공문에 따라 스마트폰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
 - ▷ 그린i-Net(청소년인터넷안전망) 홈페이지 적극 홍보 및 활용

7. 피해학생 보호·치유 지원을 위한 '꿈나르미 힐링센터' 운영

- ◆ 학교폭력 사안 발생 초기부터 의료기관에 의한 맞춤형 상담, 심리치료 등 지원을 통해 피해학생 및 가족이 학교폭력 피해를 조기에 치유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함(학교부적응, 정서행동특성고위험군 학생도 수혜).
 - ▷ 경남서북부권 경상대학교병원 힐링센터, 중남부권 삼성창원병원 힐링센터, 중부권 한마음병원 힐링센터, 동부권 해맑은신경정신과 힐링센터 등 의료기관 4개 병원 내 꿈나르미 힐링센터 구축·운영
- ◆ 세부내용
 - ▷ Wee센터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의 병(의)원 심리검사비(1회) 무료(도교육청 부담)
 - ▷ 정신건강의학 전문의와의 심리상담 1~10회 내외까지 무료(도교육청 부담)
 - ▷ 의사와의 전문심리상담을 충분히 하였음에도 치유와 치료의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의사 상담을 통하여 보호자의 동의하에 환자 등록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받되, 치료비는 가해학생에게 구상권 청구
 - ▷ 장기입원 치료를 요하는 경우 : 국립부곡병원 이용(우리교육청 MOU체결 기관)

8. 문화예술교육 지원 및 '노래하는 학교' 운영

- ◆ 문화예술교육 지원
 - ▷ 예술중점학교(2교), 학생오케스트라 운영학교(31교), 예술교육선도학교(13교)
 - ▷ 예술동아리 운영학교(교육부 40교, 도교육청 683교), 예술강사지원(716교)
- ◆ 노래하는 학교 운영
 - ▷ 노래하는 학교 찾아가는 '꿈 나르미 콘서트' 개최
 - ▷ 제50회 경남중등학생종합학예발표대회 최우수팀, 학생오케스트라 운영학교, 지역교육청 추천학교 등



Stop bullying, Start beauty

‘괴롭히기 그만, 아름다운 행동 시작’ 창원Wee센터가 함께 합니다

글 창원교육지원청Wee센터 실장 전희정

◆ One-Stop 지원 상담센터

창원Wee센터는 센터장 1명, 담당장학사 1명, 전문상담교사 3명, 전문상담사 5명, 임상심리사 1명, 사회복지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기학생의 ‘진단-상담-치료’가 한 곳에서 가능한 One-stop 지원 상담센터이다.

창원Wee센터에서 우리 아이들이 ‘Stop bullying, Start beauty’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소개해 본다.

◆ 학교폭력 전담팀 운영

창원Wee센터에서는 학교폭력 사안 접수시 학교폭력 가·피해자의 치유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교폭력의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3년 관내 학교 집단따돌림이 발생하여 창원Wee센터는 위기 상황에 즉각 개입하였다. 해당 학년의 전체 학급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교육과 애도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또 집단따돌림에 가담했던 학생들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에 학생들이 사건에 대해 객관적 시각과 안정감을 갖게 되었다. 선생님들은 Wee센터의 정서적 지원에 안심했고, 학부모들은 안도하며 자녀를 학교를 보냈다.

◆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및 거리 상담

창원Wee센터는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폭력의 인식과 대처방법, 상담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및 거리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창원Wee센터는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도교육청, 창원 관내 경찰서들과 함께 합동 길거리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올 3월 교육장님과 창원 관내 여성보호계장님들과 함께 명곡동 주민센터를 기점으로 명서초, 명서중, 창원중, 창원고등학교로 가두행진을 벌였고, 성황리에 캠페인을 끝마쳤다.

◆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 「사·우·나 - 사랑과 우정을 나누자」 운영

올해 창원Wee센터는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 학생상담자원봉사자와 함께 손을 맞잡고 관내 42개의 초등학교로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14년 현재 42개의 신청한 초등학교(총4,927명)를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13년도의 경우 학교폭력예방교육 실시 후 받는 설문지에서 84.1%이상이 재참여를 하고 싶다고 응답할 정도로 학생들의 호응이 좋은 프로그램이다.

◆ 특별교육 이수 프로그램 「Change up!」 운영

창원Wee센터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와 학교선도운영위원회의 특별교육이수 조치를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이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징계조치 이수와 거시적으로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또 다른 위험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돕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도심지와 멀리 위치해 있는 B중학교에서 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받은 학생 홍길동군은 특별교육을 받기 전에는 본인이 후배를 때리는 행동이 동네의 관습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그러나 특별교육이수 후 그 행동이 학교폭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전학 가는 학교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히 생활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 학교생활 적응 프로그램 「늘솔길-언제나 솔바람이 부는 길」 운영

이 프로그램은 학생의 낮은 성취경험 혹은 부모의 잘못된 양육방식 등으로 자존감이 낮고,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가지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성취감 획득과 자존감 향상을 통해 학교적응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C초등학교의 흥부군은 수업시간이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물건을 엮는 등의 폭발적인 행동을 해왔다고 한다. 늘솔길 프로그램이 끝난 후 담임선생님께서 '흥부군의 폭발적인 성격이 많이 잠잠해졌다' 며 감사의 전화를 주셨다.

◆ 마치며

창원Wee센터는 학교폭력예방과 학생들의 학업중도탈락, 학생들의 위기순간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었으며, 올해로 7살이 되었다. 아직은 아동의 나이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학생들이 자신의 정체감과 개성을 찾아가듯 창원Wee센터도 점차적으로 본연의 색과 창원지역의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을 찾아내고 진행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폭력의 굴레를 벗어나 친구를 배려하는 아름다운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친근하고 따뜻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갈 예정이다.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

글 사천 삼천포중앙고등학교 교감 백종태

본교는 중소도시에 위치한 학교로 학교폭력이 드물게 발생하였으나, 2014학년도에는 학교폭력의 완전 근절을 위해 인성교육을 강화하고자 한다. 피해 학생의 보호 조치와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과 처벌만으로는 학교폭력이 줄어드는 데 한계가 있기에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정신, 협동심, 책임의식, 공동체의식 등의 덕성 함양으로 학교 폭력은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 주고 바람직한 태도 변화를 유도하여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사전에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학생들 스스로 능동적인 자세로 학교폭력 예방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확대와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구안·적용하여 학생들의 폭력예방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1. 교육공동체와 소통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인프라 구축

가. **물적 기반 확보** : CCTV 운영, 꿈나르미보안관제 발대식 및 학교폭력 예방 비폭력 서약서 작성, 실내 환경정비 및 폭력예방 스티커 부착, 안심 알리미 서비스 확대 실시, 학교 홈페이지를 활용한 폭력 예방 홍보 등을 통하여 물적 기반을 확보한다.

나. **인적 기반 확보** : 학교폭력전담기구 및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구성, 꿈나르미보안관 조직(교사, 학생봉사대 15명, 학부모 15명), 교내 순찰 활동 조직(전 교원), 배움터지킴이 운영, 전교학생회 조직, 찾아가는 상담부스 운영 등을 통하여 인적 기반을 확보한다.

다. **협의 체제 구축** : 학교폭력예방 컨설팅 요청(사천교육지원청 2회), 꿈나르미보안관 제위원회 회의 개최(4, 6, 9월), 생활지도위원회 협의회 개최(학기 별 1회), 학교폭력 외부 전문조사단(사천경찰서, 삼천포지구대 협조)을 구성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앞장선다.

라.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 매주 월요일 담임교사 훈화 자료(학생들의 마음 열기)를 활용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친구의 날, 친구사랑 주간 운영, 학교폭력 예방 교실(4, 9월) 개최, 학교폭력 예방 교직원 연수, 학교폭력 예방 학부모 연수(3, 9월) 및 가정통신문 발송(4, 6, 9, 10월) 등을 통하여 교원, 학부모, 학생들에게 학교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노력한다.

마. **지역사회 기관과 협력 운영** : 사천시 청소년 지원센터와 협력 프로그램 운영,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MOU 체결(사천경찰서, 삼천포지구대),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을 전개(삼

천포지구대, 교원, 학부모, 학생)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동참하도록 유도한다.

II. 체험을 통해 학교폭력예방의 공감 형성

가. 전통예술 체험 실시 : 향교를 활용한 전통 예절 교육(1학년과) 실시, 호연재를 활용한 다도(교육꿈나르미보안관제 위원, 전교학생회 간부 학생) 실시, 효제 실천주간(5월 5일부터 9일) 운영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부모님께 효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나. 문화예술 체험 실시 : 전교생을 대상으로 푸른 숲 등반 체험으로 고운 심성 기르기, ‘끼발산 콘서트’ 음악 발표회 실시(7월 11일, 10월 17일)하여 학교 수업에 지친 학생들이 푸른 숲 등반 체험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자연과 함께 등산하며 건강을 증진시키고, 체력 향상과 협동심도 기르면서 신체 및 정신을 건강하게 하고, 바람직한 음악 체험 활동으로 풍부한 감성과 정서를 순화시켜 인성함양에 도움을 준다.

다. 캠페인 활동 실시(인성교육부 교사, 꿈나르미보안관제 요원, 전교학생회 간부)

라. 스포츠 활동 : 한마음체육대회 실시(5월 14일), 수요일 스포츠데이 운영 및 대회를 실시(10월, 축구, 피구)하여 공동의 내용과 목표 아래 단결하고 통합적으로 참여하고, 소속집단(반, 학년, 학교)에 대한 소속감을 강화시키는 기회를 제공하여 애교심을 높이며, 신체적, 정신적 육구를 충족시켜 건전한 청소년으로 자라게 하는 전인 교육의 목적을 달성한다.

마. 독서 활동 : 매월 2, 4주 수요일 7, 8교시에 각반 교실과 도서관(각 반별로 순회)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삶의 가치와 그 가치를 반영한 독서 시간을 운영하여 바른 인성을 함양하는데 도움을 준다.

바. 기타 체험 : 흡연예방교육 실시(5, 9월), 진로체험을 통한 자아 효능감을 함양한다.

III. 마음 치유를 통해 학교폭력 재발 방지

가. 치유프로 그램 개발 및 운영

Wee클래스 운영, 찾아가는 상담부스 운영, 사천시 청소년문화센터 활용, 애플데이 운영(10월 중), 학생상담자원봉사자 교육 및 활용, 위기학생 학부모와 담임교사와 상담활동 활성화, 쏠리언 포레상담 실시 등으로 학교폭력 재발 방지에 노력한다.

IV. 예상되는 결과

가.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터를 마련하고,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한 연수활동 및 홍보활동 강화로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의식이 고취 될 것이다.

나. 학교 밖 문화 공간의 확대와 교육 과정 재구성으로 창의적이고 특색 있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해 질 것이다.

다.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교육공동체의 인성교육에 관한 역량강화는 학교폭력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학교폭력은 「마음다스리기 프로그램」으로

글 양산 황산초등학교 교장 신홍재

1. 아이들 마음 들여다보기

교육현장에서 ‘학교폭력’과 관련된 학생들과 상담하다보니 대부분의 마음 속에 큰 분노를 가지고 있었다. 학생들의 마음 속 분노가 학교 내에서 폭력, 욕설, 집단따돌림 등의 파괴적인 모습으로 표출되는 것을 보고 늘 안타까웠다. 이에 본교에서는 학부모의 높은 교육열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학생들의 마음 속 분노를 긍정적인 방법으로 표출하고 소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마음 다스리기 프로그램」을 Wee 클래스, 집단상담, 꿈키움 교실 등과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학교폭력을 예방하고자 하였다.

2. 분노를 소통으로 바꾸는 「마음 다스리기 프로그램」

마음 다스리기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의 수준에 맞게 만지고 주무르면서 편안함을 가질 수 있는 점토와 재미있는 카드놀이로 만든 공감대화카드를 중심으로 교사와 학생이 즐겁게 소통하며 학생들의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을 익히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본교에서는 기존의 분노조절 프로그램을 전문가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구안하여 적용하고 있다.

〈분노를 소통으로 바꾸는 황산 마음 다스리기 프로그램〉

회기	단계	활동내용	프로그램 특징
1	신뢰 형성	◇ 프로그램 소개 및 서약서 쓰기 - 별칭을 점토로 만들어 자기소개하기	 <p>점토 (만지고 주무르며 편안함!)</p>
2	감정 탐색	◇ 공감대화카드 놀이로 감정 알아차리기 - 몸으로 감정표현하기, 감정 맞추기	
3	감정 인식	◇ 공감대화카드로 나와 친구들의 감정을 나누고 공감하기	 <p>공감대화카드 (카드놀이로 공감!)</p>
4	감정 표현	◇ 내 안에 있는 분노를 점토로 만들어 표현하기	
5	감정 조절	◇ 분노를 조절하는 전략을 알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 선택하기	 <p>신체 활동 (몸을 움직이면서 즐거움!)</p>
6	성장	◇ 나와 친구들에게 줄 '카나페 만들기' - 카나페를 먹여주며 축하하기	

3. 마음을 여는 아이들

“친구들이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다”, “화를 제대로 낼 수 있을 것 같다.” 등등 아이들의 반응은 참 다양하였다. 이렇게 긍정적인 피드백과 행동의 변화를 통해 아이들의 마음이 다스려진다면 학교 폭력문제 해결에 좀 더 근본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소재강국 실현을 위한 FRONTIER KIMS 재료연구소

재료연구소는 소재 대중화 및 소재기술 관련 연구개발, 시험평가, 기술지원 등 재료기술을 선도하는 종합재료전문연구기관이다. 재료연구소에서는 연구소 견학, 경남 초등학생 과학상상 그리기 대회, 소재이야기 공모전, '재료연구소로 소풍가자' 등 학생들의 창의적인 발상과 꿈을 지원하는 교육기부 프로그램 운영으로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M군과 함께하는 신나는 재료여행(연구소 견학 프로그램)

- 운영대상 : 초·중·고등학생
- 운영기간 : 연중 상시(공휴일 및 주말 제외)
- 운영규모 : 1회 20명 내외
- 신청방법 : 유선 문의(055-280-3792)
- 견학일정 : 소재기술 영상 관람, 홍보관 견학, 실험실 탐방 등



과학문화 대중화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주요 내용	
경남 초등학생 과학상상 그리기 대회	지역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소를 개방하여 그리기 대회를 실시함으로써 과학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행사 / 연 1회	
재료연구소 소재이야기 공모전	전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직접 소재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고 자신만의 이야기로 풀어냄으로써 소재 및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행사 / 연 1회	
재료연구소로 소풍가자	소재기술과 재료연구소에 대한 대국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청소년 및 일반인, 기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구소 오픈 행사 / 연 1회	

※ 문의 : T.055-280-3792, F.055-280-3369, lkt3721@kims.re.kr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방안



| 학교폭력 신고 및 전담기구 조사 |

글 경상남도교육청 상임변호사(학생안전과) 성수민

I. 신고의무

사안을 인지했을 때,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학교에서 교원들이 어떻게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문의가 많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은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신고 받을 때 주의사항(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61p, 교육부, 2012)

- 교원이 사안을 듣거나 신고를 받게 되면, 전담기구 소속 교사나 책임교사에게 알린다. 신고를 받은 기관은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한다.
- 보호자가 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안에 대한 '진실 파악'을 해야한다. 보호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학생들을 통해서 들은 간접정보이기에 사실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다른 학교 교사가 자신의 학교 학생들을 조사하다가, 다른 학교 학생이 관계된 것을 알고 연락해 올 때는 학교폭력 관계 법령에 따라 진행한다.

II. 전담기구 접수 및 조사 절차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교육부, 2012)에 의하면 학교폭력 접수 사안은 신고서를 받고 신고대장에 기재하여 보관한다. 학교장과 담임교사에게 보고 한 후 관련학생 보호자에게 통지한다.

전담기구에서 구체적인 사안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서면조사, 해당학생 및 목격자의 면담조사, 사안현장 조사 등을 통해 종합적인 방법으로 신속하게 자료를 확보한다.

면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육하원칙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확인서를 받는다.

시간이 지난 후에 확인서를 받으면 사전에 가해학생의 위협이나 관련학생들이 말을 맞추어 사실이 왜곡될 위험이 있으므로, 사안발생 직후 사실 확인서를 받는 것이 좋다.

관련학생(피해·가해학생)의 확인과 더불어 주위에서 직접 목격한 학생의 확인도 같이 받는 것이 좋으며 같은 자리보다는 서로 보지 못하는 다른 공간에서 받는 것이 객관적이 내용 기술에 도움이 된다. 이때 학생의 이름과 확인내용 비밀 유지에 유의한다.

III. 조사결과 통보 및 사건보고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해당학생 부모님께 알리고, 향후 진행 절차 등에 대해 통보한다. 이 때 조사서류를 열람케 하여서는 안되며 사안조사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준다. 또한 사안조사 결과에 대하여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복식학급 학생들의 개별화 학습을 통한 신체운동능력 신장



글 하동 고남초등학교 교사 이승운

1. 즐거운 체육수업에 대한 고민

우리가 가르치고자 하는 다양한 신체 활동을 비롯한 체육활동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 누구나 기대하는 체육시간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교사라면 누구나 '즐거운 체육수업'을 하고 싶은 소망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장에서 '즐거운 체육수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교사는 많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즐거운 체육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흥미와 즐거움, 보람을 줄 수 있는 수업, 여기에 체육과에서 추구하는 건강한 신체와 기능 향상이라는 목적이 더해져야 한다는 분석으로 찾아낸 것이 개별화 학습을 통한 수업이다. 이는 모든 학생이 개인의 신체기능과 능력을 고려하여 단위 학습시간에 도달해야 할 목표를 위해 자신의 수준에 맞는 활동을 하는 것이다. 서로 다른 신체능력을 가진 학생들이 있는 복식학급임을 고려하여 교사는 3학년 학생들에게는 수업과정과 목표에 대한 최소한의 안내자 역할을 함과 동시에 1학년 학생에게는 적극적인 동반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다양하고 즐거운 체육활동을 하고 자신의 신체능력에 따라 최선을 다해 주어진 과제를 해결해감으로써 자신감 있고 건강한 어린이로 자라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2. 체육활동에 대한 흥미와 관심 및 신체운동의 중요성 인식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체육활동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고, 신체운동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먼저 학급 게시판을 활용하여 체육신문, 좋아하는 스포츠선수와 종목 게시 등 신체운동 친화적인 교실 환경을 조성하였다. 건강한 심신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아침활동시간에 사제동행 아침운동으로 교사와 학생이 함께 아침달리기와 줄넘기 운동을 실천하였으며 각종 체육활동 용구 및 도구를 교실에 비치하여 학교 생활 전반에서 즐길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그리고 신체운동과 건강과의 관계 인식을 위해 타교과와 연계하여 신문 광고(미술, 즐생), 운동의 중요성을 알리는 뉴스(국어)를 만들어봄으로써 신체운동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사의 체육지도 역량 강화를 위해 각종 체육관련 연구대회에 참가하였으며 체육교육 관련 서적 탐독, 매일 아침 30분 운동을 실천하였다.

3. 신체운동 능력 신장을 위한 개별화 학습 프로그램 구안·적용

교육과정 분석을 통하여 신체운동의 가장 기초가 되는 다양한 운동요소와 신체의 움직임 요소를 추출하여 연간 지도 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움직임 활동을 통한 지도방법 구안 및 신체운동 능력 신장을 위한 개별화 수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단위 수업시간에 적용함으로써 학생들의 기초적인 신체운동 능력을 신장시키고자 하였다.

4. 다양한 체험 기회 제공으로 신체운동 능력에 대한 자신감 가지기

개인의 신체운동 기능을 몸으로 표현하고, 대중들 앞에서 발표하며, 운동경기(스포츠)를 직접 관람하는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제적인 신체운동 기능을 표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신체운동 능력에 대한 자신감과 체육활동에 대한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마치며

학생들의 연령과 신체수준이 각기 다른 복식학급 학생들이 자신의 신체표현 및 신체운동 능력을 알고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스스로 찾아서 함으로써 체육활동에 즐겁게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수준에 맞는 체계적인 운동프로그램을 구안·적용함으로써 학생들의 기초적인 신체표현 능력과 신체운동 능력이 향상되었다. 수준별 개별화 활동을 통해 학생을 정해진 틀 속에 넣는 수업이 아닌 학생 개개인에게 맞는 활동을 제공함으로써 운동기능이 부족한 학생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상·하급생이 함께 운동하는 과정에서 협동심과 동료애가 향상 되었으며 이로 인해 학급 분위기가 좋아졌고 생활지도에도 도움이 되었다. 또한 신체운동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도 자신의 수준에 맞는 목표에 따라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체육시간을 즐길 수 있게 되었고 학교생활 적응에도 도움이 되었다.

추체험 역사학습 활동으로 떠나는 시간 여행



글 김해관동중학교 교사 신영옥

1. 들어가며

‘수업 활동에 학생들을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 하는 고민은 수업을 준비하는 교사들의 가장 큰 고민이다. 학생들의 움직임이 계속되는 수업, 나아가 학생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함께, 교사와 학생들, 학생과 학생들간에 호흡도 이끌 수 있는 수업활동의 모형을 2학년 역사수업시간에 적용해 보았다.

2. 추체험 역사학습활동으로 신나는 수업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 사람들이 했던 생각을 파악하고, 그들이 했던 것과 같은 활동을 하면 되지 않을까? 과거 사람들이 했던 활동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그들이 겪었던 것과 같은 조건, 상황을 설정한 다음, 그들의 생각을 미루어 짐작함으로써 활동을 추적해 보면 되지 않을까? 이러한 역사 이해가 곧 추체험인 것이다. 다음은 수업시간에 활동할 수 있는 역사수업의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가. 극화학습

줄거리를 가진 극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수업을 통칭하는 수업 방식이다. 흔히 연극식 수업을 가리키지만, 방송극 형태의 수업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나. 시뮬레이션 게임

시뮬레이션(simulation)은 ‘가상현실’이라는 말이 가리키는 바와 같이 실제의 상황을 어떤 공간에 가상적으로 설정해 놓는 것이다. 시뮬레이션에 의한 역사학습은 게임의 형태를 수반하는 것이 보통이다.

다. 역할놀이(role play)

넓은 의미에서 역할놀이는 극화학습이나 시뮬레이션게임과 같이 극의 형태로 이루어진 학습을 총칭하지만, 좁은 의미에서는 어떤 문제 상황이 제시되고, 학습자가 자발적 연기를 통하여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문제해결학습을 가리킨다.

라. 역사일기 쓰기

역사일기는 과거의 사람들이 겪었던 일을 일기의 형식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역사적 인물의 입장에서 자서전을 써보는 것도 비슷한 성격을 지닌 학습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마. 주장문 쓰기

- 1) 시무책 쓰기: 시무책은 사회나 국가의 문제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자신의 견해를 적는 글이다.
- 2) 격문 강령쓰기: 민란이나 동학농민전쟁에서 농민군이나 반란군의 입장에서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격문 또는 강령 등을 쓰게 하는 수업 방식을 생각할 수 있다.
- 3) 조약문 쓰기: 대외관계에 대한 학습에서 시행할 수 있으며, 토론형 시뮬레이션게임의 학습정리나 평가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다.

바. 역사신문 제작

근래 역사교사들의 수업사례 발표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방식이다. 역사신문은 학생들로 하여금 역사적 사건이나 현상을 친근하게 접할 수 있게 하며, 그 시대에 대한 생생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게 함으로써 역사에 대한 흥미나 관심을 높일 수 있다.

3. 추체험 역사학습모형을 적용한 수업활동 예시

추체험 1 : QR코드로 만나는 ‘인물로 보는 통일신라 말 사회’

- 모둠별 추체험 개별학습을 통해 통일신라 말에 새로운 세력이 되어 보는 추체험 활동을 한다.
- QR코드로 ‘인물로 보는 통일신라 말 사회’ 학습지를 해결한다.
- 각 세력의 특징과 성향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통일신라 말의 사회모습을 체험해 본다.
- 통일신라 말에 가장 반기를 무리하게 든 인물이 누구인지 생각해본다.

추체험 2 : 선거 포스터 만들기 ‘새 시대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 사전에 각 모둠장들이 추천한 신라 말 인물들을 선택한다.
- QR코드로 사전에 학습한 자료를 활용하여 모둠별 선택한 인물에 대하여 ‘선거 포스터’ 활동을 해결한다.
- 모둠별 배부된 참고자료 및 개인이 준비한 자료는 결과물로 제작한다.
- 인물의 성향과 특징이 잘 나타나도록 충분한 토의 활동을 한다.
-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인물의 주장들을 소개하는 ‘선거 포스터’ 만들기 과정을 통해 역사적 탐구력, 사고력 등을 기를 수 있다.

추체험 3 : ‘통일신라의 멘토를 뽑아주세요’

- 발표한 인물들 중 가장 통일신라 말 사회에 필요한 멘토를 선발한다. 투표는 학생 1인당 1표씩 부여하여 투표한다.
- 지금까지 발표한 통일신라 말 선거포스터 인물 중에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여러분이라면 누구를 지지할 것인가? 발문한다.
- 투표 결과에 뽑힌 ‘통일신라의 멘토’로 선정된 모둠에게는 모둠활동을 가장 잘 발표한 모둠으로 보상한다.
- 투표 결과의 지지도를 바탕으로 통일신라 말 사회변화를 주도한 지방 세력이 고려 왕조의 중심 세력임을 연결하여 설명한다.

4. 나가며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외우고 답습하는 역사교육에서 벗어나 추체험활동을 적용한 역사교육이 필요하다. 추체험 학습을 통해 시대의 특징, 역사인물의 문제해결방법을 체험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역사적 탐구력과 사고력을 기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토의 · 토론으로 가꾸는 명품 제산교육

글 거제 제산초등학교 교장 이종향

1. 토의 · 토론 수업방법개선 정책연구학교

본교는 경남교육청 지정 수업개선 정책연구학교로 선정돼 2년간 토의 · 토론 모델을 접목해 수업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2013년 11월 26일에는 경상남도 관내 많은 자문위원과 연구위원을 초청하여 성공적으로 보고회를 열었다.

본교는 토의 · 토론교육을 통해 새로운 생각과 실천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교육을 실천하고, 민주적 절차와 상호존중 및 배려를 중점으로 하는 인성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2. 준비 단계

가. 왜 토의·토론 교육인가?

빠르게 변하는 지식기반사회에서 나와 너, 우리라는 공동체의 새로운 문제에 대해 합리적이고 바람직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토의·토론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또한, 앞으로의 세계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인재양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나. 어떻게 할 것인가?

토의·토론 기반의 교육을 실시해 왔던 서양식 교육과 달리 주입식 교육을 펼쳐 왔던 우리의 교육 풍토에서 과연 ‘어떻게 수업을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끝에 세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찾아내었다.

첫째, 교과연계형 토의 토론 model 운영을 위한 여건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둘째, 교과와 연계된 토의 토론 model을 어떻게 개발하고 적용할 것인가?

셋째, 토의 토론 자료의 일반화와 수업방법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3. 실행 단계

가. 토의·토론 모델 운영을 위한 기반 조성

먼저,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전제하에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사연수를 시작했다. 매주 월요일 직원회의 시간을 이용해 정책연구학교 관련 토의·토론 기법과 교과별 적용에 대해 연수를 실시하고 수석교사 초청 연수, 학년별 토의·토론 연구 활동을 하였다.

학생들이 토의·토론에 익숙해지도록 교실환경을 개선하여 일상생활에서 토의와 토론에 대한 관심을 두도록 하였으며, 학교 누리집을 개편하여 사이버 공간에서도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게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토의·토론에 참여해보지 못하여 말하는 방법과 듣는 방법, 사회 보는 방법 등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위해 학생 교육 메뉴를 제작하여 토의·토론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과 밀착해 있다는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교육은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 공동체의 참여가 있을 때 참교육이 된다는 믿음으로 가정에서의 토의·토론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대화교육과 토의·토론’을 주제로 학부모 교육을 열어 학부모에게 토의·토론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가정에서의 민주적인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역설하였으며, 자녀와의 대화 방법에 대해 교육을 하였다. 이후 가정 토론대회를 개최하여 한 달에 한 번은 온 가족이 모여 토의·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나. 교과와 연계된 다양한 토의·토론 모델 개발·적용

토의·토론을 교과에 적용하여 실제 교실 수업을 개선하기 위해 각 교과의 단원별 토의·토론 학습 내용을 추출하였다. 과목별 학습 요소를 추출하여 학습 요소별 자료를 분석한 후 토의·토론



요소를 선정하는 이 과정은 교사들이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교환하면서 전문성을 높이고 토의·토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귀중한 시간들이 되었다.

아이디어 개발, 쟁점 분석, 지식 습득, 의사결정의 네 가지 유형별 다양한 토의·토론 기법을 탐색하여 본교에서 자체적으로 6개의 토의·토론 기법을 개발하였지만, 정반합 토의 기법을 자체 개발 기법으로 확정하고 나머지 5개의 토의 기법들은 검증과정을 거치거나 검증을 중단한 상태이다.

교과와 연계하여 실제 수업 개선을 위해 기존 학습모형의 연구도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본교 자체적으로 ‘대화 모델’과 ‘토의·토론 모델’을 개발하였다. 대화 모델은 활동중심 대화모형과 배려중심 대화모형으로, 토의·토론 모델은 찬반대립 모형, 찬반협력 모형, 정반합 모형으로 나누어 과목별, 학습요소별로 적용이 가능하도록 교수·학습과정안을 개발하고 실제 수업에 적용해 보는 과정을 여러 차례 거쳤다.

본교에서는 ‘꿈여울 키움장’이라는 창의적 체험활동 교재를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다. 본 교재에 ‘토의야, 놀자’ 코너를 따로 마련하여 전 학년이 독서, 토의·토론, 논술에 대한 통합적인 감각을 익히고 있으며, 요즘 교과 교육에 밀려 중요성이 줄어들고 있는 학급 어린이 회의(학급자치) 활동을 강화하여 토의·토론을 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토론 능력을 향상을 위한 다양한 탐구 활동도 하였다. 전교생이 참여하는 통합 논술 대회는 ‘책 읽는 학교’와 연계한 독서 통합 논술로 진행되어 학생들의 다양한 생각을 펼쳐 보이는 기회의 장이 되었다. 5~6학년들은 토론대회를 실시하여 토의·토론의 꽃이라 부르는 정식 디베이트 토론을 경험하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 논리의 전개가 조금은 부족하고 상대방의 반박에 당황하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었지만 학생들은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참여하였다. 또, 월요일 전교 조회 시간에는 학생들의 자기 생각 말하기도 실시하고 있다. 일상적인 학교생활에 대한 내용부터 시사적인 내용까지 다양한 주제를 많은 사람 앞에서 발표 할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감을 높이고 서로의 생각을 확인 해 보는 좋은 시간이었다.

다. 토의·토론 자료의 일반화와 교실수업방법의 개선

수업 장학, 동료 장학, 자율수업, 수업모니터링, 수업마일리지제를 활용하여 토의·토론 수업 전문성 신장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중심모델과 응용모델의 일반화 자료를 개발하여 본교 누리집에 탑재하였다.

그동안 다양한 토의·토론 활동을 숨가쁘게 진행해 왔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2013학년도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14학년도에도 2년 차 정책연구 과제들을 추진하고 있다. 본교는 꾸준히 토의·토론 교육에 한 걸음씩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싱-Sing 교육’으로 펼치는 교육 미래



글 마산고등학교장 안형호

1. 마산고등학교는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1936년 개교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지역의 명문 고등학교이다. 우리 학교는 인문계 공립고등학교로서 학생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것이 주요 사명이지만 고교평준화정책과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자율형사립고 등으로 우수한 학생들이 빠져나가면서 최근 학력 저하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예전에 지역사회에서 명문이라는 이미지가 사라지고 있어 학교 공동체가 변화가 필요하였다. 그러다가 최근 5년간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 받으면서 사라진 예전에 마고의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 교육공동체가 노력하는 모습을 소개하고자 한다.

2. 싱싱 교육이 펼쳐지는 여기는 마산고

가. 교육공동체 산행 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동문 선배들과 교사, 학부모, 모든 학생이 참여하는 무학산 산행은 마산고등학교의 전통적인 행사

이다. 산행을 통해 체력과 호연지기를 기르고 선후배 간의 우정을 돈독히 하고 상호 간 신뢰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본교의 교육 목표를 구성원 모두가 공유함은 물론 학생들에게는 선배님, 부모님, 선생님과의 산행을 통해 자연스러운 인성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나. 1인 1특기-1악기 재능 연마

우리 전통을 계승하는 대금, 태권교육을 통해 우리 고유의 것을 지키고 보존하며 이를 마산고의 전통으로 만들어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자기 자신을 가치 있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자아 존중감을 함양하여 학생들의 학업 성적 향상과 정서 안정, 즐거운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노력하였다.

다. 1교 1자매 결연을 통한 재능기부 봉사 활동

마산고등학교와 의료법인 예경의료재단 마산예경병원은 학생들의 올바른 인격 형성과 봉사정신 함양을 통해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는 자세로 교류함을 약속하면서 자매의 인연을 맺었다. 세계적인 봉사활동 단체인

남마산 로터리 클럽과의 협의를 통해 ‘인터랙트 클럽’을 결성하고, 2012년 11월 16일 ‘마산고등학교 인터랙트 클럽’ 창립식을 가져 현재까지 활동 중이다.

라. 재능 기부 봉사 활동을 통한 자아 존중감 함양

창의적 체험활동의 심화활동으로 교육 기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그 교육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노력하였다. 아래는 밀양시 무안면 장애인복지시설 크레파스에서 과학동아리 학생들이 시연활동을 하는 모습과 구남중학교에서 버핏즈 경제동아리 학생들이 활동하는 모습이다.

마. 다양한 교과교실 운영을 통한 교육력 극대화

1학년 대상 연간 60시간의 수학 과학 비교과 체험활동 실시하였다. 특히 1학년에 특별 교과 I(과학교양)의 개설하였으며 다양한 체험활동과 특강, 환경활동, 수학탐구, 과학 창의 앰배서더 초청강연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전개하였다.

바. 과제탐구 교양과목 운영

과제탐구 과목을 교육과정에 신설 운영하여, 주제탐구수업의 질을 높이고 자기 주도적 학습을 실현하고자 노력하였다. 과학과, 사회과에서 시수를 확보하여 자연과정에서는 실험 위주로 인문과정에서는 과제탐구 위주의 교과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사. Mission Impossible in Jeju

수학여행을 그냥 한번 견학과 체험 활동하는 일회적인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반별 미션을 수행하는 색깔 있는 즐거운 테마 수학여행 행사를 했다.

아. 다양한 교사 및 학생 동아리 활동

마산고등학교는 다양한 교사 연구회와 교사 동아리 운영을 통한 학생들과 소통하고 연구하는 분위기를 항상 만들어가고 있다. 특히 50개 넘는 학생 동아리는 마산고등학교의 자랑이고 명품 마고 교육의 핵심이다.

자. 미국 IVY리그 지역 명문대학 탐방을 통해

교과 성적 및 등 각종 교육활동에서 우수한 능력을 발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외명문대학 탐방 및 문화체험활동을 하였다. 미국의 우수한 대학들과 문화체험활동을 통해 넓은 시야와 국제적인 감각을 갖춘 명품 마고인을 육성하도록 노력하였다.

차. 싱싱 노트, 마고 3품제와 해외문화 탐방 활동

싱싱 노트를 활용하여 교육활동의 기본이 되는 학력, 인성, 특기 적성 영역에 대한 효율적인 목표 달성을 확인하여 시상하고 마산고 역사관에 기록을 남김으로써 타학생의 모범이 되도록 하였다. 학습자들이 1년 동안 성취한 각 영역에 대해 학교장상(마고인상)을 수여하고 상위득점자 순으로 예산 범위 내 해외문화탐방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3. 미래로 가는 마산고 상-Sing 교육

‘싱-Sing 마산고 교육 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기초 생활 습관 및 자아 존중감 정착,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신장, Vinsion27 진로교육 구현 등을 위해 다양한 교육활동을 전개하였다. 5년간의 자율형 공립고의 운영을 통해 공교육의 위상을 높이고 평범한 인문계 학생도 우수한 명품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놀리로 오고 싶은 학교 만들기

- 어디서 놀았니? 우리는 학교에서 놀다!-

글 김해 주석초등학교 교사 박성호



1. 들어서며

아이들은 학교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학교는 지루한 곳, 혹은 너무도 당연하게 공부하는 곳이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아이들의 생각을 바꾸어서 친구들과 어울리고, 매일 매일 무엇을 할까 기대하는 곳으로 만들려면 학교는 재미있어야 하겠지요.

학교에서 아이들은 스마트 폰을 가지고 서로 얼굴을 쳐다보지 않고 게임에 열중하며 대화를 합니다. 여자 아이들은 사진을 찍고 SNS에 올리며 놀입니다.

어린 시절에 해질 녘까지 놀다가 어머니께서 부르시면 그 때야 집에 들어서던 예전의 놀이 문화는 정처 없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제는 학교에서 잘 노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되리라 생각하였습니다.

2. 잘 노는 아이로 만들어 봅시다.

세상이 각박합니다. 끔찍하다 싶은 일들이 학교에서도 종종 일어납니다. 규칙을 지킬 줄 몰라서 그렇겠지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을 지키지 않으니 사고가 납니다. 남과 소통하는 방법을 모르고 타협할 줄 모르니 사고가 나는 것이겠지요. 사람과 소통하며 노는 것이 아니라 기계와 소통 없이 놀며 크니 정서는 마르고 자신의 의사를 똑바로 전달하는 방법도 모르지요.

놀이는 아이가 경험하는 작은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놀이 속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을 잘 지키지 않으면 다른 아이들과 함께 하기가 힘듭니다. 자기만 옳다고 고집피우면 함께 놀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아이들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놀이 속에서 아이들은 소통을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다면 타협해주고, 인정해 주지요. 사회의 법과 규칙이 그러한 것과 비슷하게요.

그러니 잘 노는 아이들이 잘 크는 것은 당연할 밖에도.

아이들이 많이 움직일수록 학업성취도가 좋아진다는 사실은 익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열심히

히 하는 아이들은 효과를 보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냥 마실 나온 어른들 같습니다. 스포츠 활동도 참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경쟁이 되다보니 아이들 마음이 아침부터 나빠지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러자고 독서를 하자니 아이들은 따분하지요. 그래서 저는 아침부터 놀입니다. 아침 활동으로 몇 년 째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가까이는 술래잡기, 팔방이라 불리는 망줍기, 달팽이놀이, 진치기 등등 탐나는 전통놀이부터 교실에서 하는 고누놀이 같은 것도요. 초등6학년 아이들이 사춘기가 어찌고 하는 말이 있지만 우리 반 아이들은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서로 업어주며 놀이도 합니다. 손잡으라고 하면 3, 4 학년만 되어도 안 하려고 하는 아이들이지만, 우리 반 아이들은 손잡고 잘 놀입니다.

교실에서도 놀이는 계속 됩니다. 손을 많이 써야 머리가 좋아지지요. 손을 억지로 쓰게 하려니 실뜨기를 학기 초부터 알려줍니다. 실뜨기도 요즘 아이들은 경쟁해서 이겨야 하나 봅니다. 사실 실뜨기는 둘이서 얼마나 오래 노는가 하는 것인데 말이지요. 박수치기도 자주 합니다. 경쟁이 아니라 협동해서 오래 놀 수 있는 것으로 알려줍니다. 노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계획적인 활동입니다. 우리는 교사니까요.

고누도 하고 놀입니다. 그랬더니 운동회 순서를 기다리면서 땅바닥에 그리고 서로 노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오래 생각해야 해 낼 수 있는 놀이니 아이들이 머리를 씩니다. 머리를 쓰게 해야 아이들이 발전하겠지요. 우리는 교사니까요.

많이 놀다보면 자연스레 규칙은 잘 지키고 교사의 지도를 잘 따르게 됩니다. 아이들은 놀이에 잘 참여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규칙을 잘 지킵니다. 남, 여 사이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요즘은 남, 여 구분이 너무 심합니다. 하지만 자주 놀다보니 남, 여 구분이 많이 사라지고 함께하는 친구라는 의식이 자리하는 듯 했습니다. 경쟁이 사라지니 그제야 남을 이해 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체력도 좋아집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술래잡기로 땀 흘리며 놀이하다 보면 자연스레 몸도 건강해 집니다. 무엇보다 교사가 놀이를 학생들과 함께 하니 아이들도 교사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3. 나가며

우리의 교육이 입시위주의 교육, 성과나 성취도 위주의 교육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기 싫지만 사실입니다. 게다가 조그만 스마트 폰 안에서 아이들은 고개를 숙이고 게임을 하고 사진을 찍고 SNS를 하며 남의 반응을 살핍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스마트 폰에서 꺼내 고개를 들게 해 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핸드폰만 보며 고개를 숙일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고개를 들어 하늘도 보고 친구도 보고 선생님도 보며 함께 놀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이들은 아침에 잠깐 하는 놀이만으로 행복해 했습니다. 교실에 놀이 도구 몇 개 가져다 놓은 것만으로 행복해 했습니다. 손뼉을 마주치는 것만으로 행복해 했고, 서로 손을 잡고 춤을 추고 함께 어울려 놀았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놀이에 대해서 기대했습니다. 오고 싶어 했지요. 우리의 노력으로 아이들은 행복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 갈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학생의 역사를 기록하는 수업 만들기

김해외국어고등학교 **박승훈** 선생님을 만나다.

세계와 교실을 하나로 묶는 소셜네트워킹으로 스마트 교육을 실천하는 박승훈 선생님과의 만남.

Q. 선생님께서는 지역교육청 주관 스마트교육 콘서트, 다음세대재단 미디어 컨퍼런스 등 전국 여러 지역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나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교육활동에 대한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 강의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A. 저는 다양한 기술의 활용에 관심이 많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은 소셜네트워킹 서비스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적절한 기술을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하거나, 학생들과 의사소통을 열심히 한 바가 있고, 그런 활동이 계기가 되어 스마트교육 콘서트(부산, 경남)에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은 제가 어떻게 소셜미디어로 학생들과 소통하고, 학생들과의 수업을 기록하기 위해 어떻게 클라우드서비스를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Q. 주로 사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는 무엇인지요?

A. 제가 수업과 관련하여 많이 활용하는 클라우드서비스인 에버노트는 노트 애플리케이션입니다. 노트앱은 수업 전 자료수집에서부터 결과정리까지 많은 부분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SNS를 하거나 인터넷 서핑을 하면서 수업에 활용하

기 좋은 자료들은 모두 노트앱에 모아둡니다. 기사를 클립핑하거나 이미지나 동영상 링크를 저장하고 왜 그 자료를 스크랩 했는지 기록해 둡니다. 그런 다음 이러한 자료들이 필요할 때 노트 내 검색을 통해 활용합니다. 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수업안을 에버노트로 작성합니다. 이렇게 수업안을 만들어 두면, 차후 수업세부계획안을 작성할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안을 잃어버릴 일이 없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찾아보거나 수정할 수 있어 좋습니다.

Q. 선생님께서는 어떤 계기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교육에 활용하게 되었는지요?

A. 5년 전부터 외국의 교육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세계 각국 영어선생님들의 블로그에 들어가서 영어교육과 관련된 글을 자주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교육활동이나 흥미로운 수업 방법을 발견했을 때에는 그 방법을 제 영어 수업에 도입해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 말쯤 외국의 영어선생님들 사이에서 에버노트라는 단어가 많이 언급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부터 저도 수업 운영 및 학생들과의 소통에 있어 에버노트를 활용해보기 시작하였습니다.



Q. 수업 준비 및 학생지도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어떻게 활용하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A. 저는 보통 노트앱을 통해 제가 해야 할 일 목록을 작성하며 생활합니다. 그리고 노트에 수업자료를 모으고 수업을 계획하며 상담내용을 기록하고 학생들의 과제도 관리합니다.

먼저 스케줄 관리의 경우, 해야 할 일이 떠오르면 곧바로 휴대폰의 에버노트를 통해서 '@수집함'이라는 노트북에 해야 할 일을 모읍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을 장소에 맞게 배정하고 처리해 나가며 처리 결과는 해당 노트에 기록해둡니다.

학생들과 상담하는 내용도 노트앱에 기록해 두는데 때에 따라서 수첩에 메모해 두었다가 사진으로 찍어서 에버노트에 올리기도 합니다.

특히 저는 학생의 과제물들을 모두 에버노트에 모아둡니다. 제출 과제물이 파일의 경우에는 정해진 노트에 바로 저장해두고, 종이일 경우에는 스캐너로 스캔하여 에버노트에 넣어둡니다. 그리고 평가가 끝난 뒤에는 학생들에게 공유해 줍니다.

Q. 그렇다면 학생들도 에버노트를 활용하고 있을 것 같네요. 에버노트를 활용하고 있는 학생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A. 몇 해 전부터 제 수업을 듣는 학생 중 희망 학생들을 대상으로 에버노트 사용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용법이 쉽게 때문에 크게 설명할 것은 없지만 정보가 없는 학생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버노트를 사용하기 시작한 학생들은 더 이상 usb를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기 때문에 'usb를 잃어버리진 않을까, 부서지진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과 관련된 과제 및 학습 결과물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모아서 포트폴리오로 편하게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반응은 매우 좋습니다.

Q.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학교교육의 교육적 효과에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 제가 주로 활용하는 에버노트는 교육을 위해 만들어진 서비스는 아닙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수많은 정보가 넘치고 있고 학생들은 이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학습합니다. 또한 학생들은 때때로 학습 결과를 활용하여 스스로 데이터를 생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정보를 조작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조작하고 관리하는 것은 자신의 삶에 대해 강력한 통제력을 갖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학교교육과정 속에서 학생들의 정보 수집 및 관리 능력을 길러주는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교육적 효과가 크며 학생들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Q. 네. 지금까지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여 학생들과 소통하는 수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A. 저는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재미있는 것들에 대해 늘 관심이 많습니다. 가끔은 추진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되기도 하지만 재미있는 것,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은 끊임없이 시도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폰과 다양한 최신 기기들을 접해보고 이를 수업에 적용하여 학생들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수업을 운영해보고 싶습니다. 얼마 전부터는 수업시간에 그림을 이용해서 문법내용이나 어려운 개념을 설명하는 방법을 도입하였는데 이런 과정에서 학생들과 함께 영어동화 e-Book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결과물들을 전자책으로 출판하고 싶어서 그 방법을 찾아보고 있으며 그림을 더 잘 그리면 좋겠다는 생각에 틈틈이 그리기 연습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학교 주변의 예쁜 구석구석을 사진으로 찍어 이를 블로그로 관리하며 학생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수업을 잘하는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들과 좀 더 가깝고 그들을 정서적으로 지지해줄 수 있는 멋진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스승님

글 MBC경남 국장 김일태

어느덧 매화, 목련, 개나리꽃들이 어깨동무 하듯 피어나는 봄이다. 이런 봄이면 어릴 적 초등학교 학창시절 새 학기를 맞이하던 그 날들이 낡은 서랍 속 흑백사진처럼 머릿속을 스쳐 마음이 설렌다. 요즘처럼 고운 옷도, 멋진 가방에 학용품도 딱히 넉넉하지 않았던 시절이었지만, 언제든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그 시절 담임선생님이었던 한 분과의 기억 때문이다.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인 1970년 봄, 학교에 처음 발령을 받은 선생님은 6학년 우리 반 담임을 맡게 되었다. 내게는 초등학교 마지막 담임선생님이었고 선생님께서는 우리가 첫 제자였다. 창녕 남지의 산간 오지 마을이라 당시 전기도 들어오지 않았던 남곡국민학교에서 선생님은 확성시설을 직접 조립해 설치하는가 하면, 인근 중학교에서 손수 빌려온 풍금으로 노래를 가르치시곤 했다. 산골이라 별스런 풍경이 아닌데도 선생님은 늘 학교 뒷산에서, 혹은 냇가에서, 교정의 플라타너스 그늘 아래에서 야외수업을 하며 식물의 생태에 대해서도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해주시곤 했다.

공부를 잘 못하거나 숙제를 해 오지 않아 매를 맞고 떠들고 다투다 벌을 서고, 가난한 형편에 수업료를 내지 못해 학교에서 쫓겨 올면서 집으로 돌아가던 일이 일상이던 그때였지만 한 번도 선생님의 손에 매를 든 모습을 본 적이 없다.

한 번은 그런 선생님께서 병원에 두어 달 입원하신 일이 있었다. 병명은 다름 아닌 영양실조로 비롯된 간염이었다. 당시 선생님은 홀로 된 어머니와 동생 여럿을 거느린 가난한 가장이었는데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우리 반 친구의 수업료를 몰래 대신 내 주고 당신은 먹을 것을 소홀히 해서였다고 나는 기억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언제나 우리 앞에서는 웃음을 잃지 않았던 선생님. 지금 그 때를 생각해봐도 가슴이 뭉클해진다.

긴 학창생활 문학 활동, 언론사에 종사하면서 신세진 많은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40년이 지난 지금도 어려운 일이 있거나 기쁜 일이 있을 때마다 나는 그 선생님을 찾는다. 지금은 학교현장에서 은퇴를 하고 다른 영역에서 예전보다 더 바쁘게 많은 일을 하고 계시지만 언제나 귀밑머리가 희끗희끗 해져가는 제자가 초등학교 6학년 철없는 학생이 되어 찾아가면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아끼지 않으신다. 생각해 보면 내게 그 선생님처럼 삶의 귀감이 되고, 그래서 평생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스승이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라 생각이 든다.

오늘날 우리 교육의 현주소를 이야기하면서 '선생은 있어도 스승은 없고, 학생은 있어도 제자는 없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우리 학교 현장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 이따금 교사로 활동하는 후배들을 만나면 잡무가 너무 많아서 학생들을 볼 겨를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안타깝기만 하다. 하지만 우리들이 잘 보이지 않는 어딘가에서는 분명 학생들의 걸모습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보살피며 진정한 제자사랑을 키워가는 선생님이 많이 계실 것이라 생각한다. 봄날 따뜻한 햇살처럼.

원칙을 지키는 안전한 사회를 꿈꾸며

글 창원 무학여자중학교 학부모 김남수

서해 바다 한가운데서 배의 앞머리만 내밀고 뒤집혀있는 슬픈 세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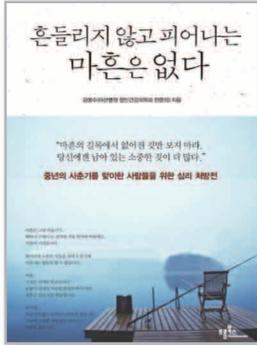
며칠 전 아침, 제주도로 향하던 여객선이 침몰했다는 믿을 수 없는 소식에 온 나라가 뒤집혔다. 그리고 그 배의 탑승객 대부분이 고등학생이라는 소식, 그것도 한껏 기대에 부풀어 떠났을 수학여행 길이었다는 사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선진국인 우리나라에서, 교통과 정보통신 대국인 우리나라에서 말이다.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온종일 세월호 소식을 전했다지만 생존자 소식은 들을 수 없었다. 조류가 심해서 며칠째 선체만 맴돌다가 뒤늦게 선내 진입에 성공한 잠수부들은 부풀대로 부풀어 신원조차 파악할 수 없는 시신만 수습할 수 있었다고 한다. 얼굴도 알 수 없고 성별도 확인할 수 없는 시신들...

DNA를 확인해야만 자식을 찾을 수 있는 부모들의 마음은 어떨까? 영원히 시신조차 찾지 못할 부모들의 심정은 또 어떨까? 그 차가운 바닷물 속 선실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창문을 두드리며 고통스럽게 익사한 아이가 내 아이였으면 난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미어지고 눈물이 차오른다.

전문가들은 생사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다행히 목숨은 건진 사람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고 그 후유증은 평생 지속될 수 있다고 한다. 살아남은 사람도 고통스런 기억과 혼자만 살아남았다는 괴로움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더 큰 고통에 시달리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이번 사건은 가족을 잃는 이에게도, 생명을 건진 이에게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아픈이고 고통이 될 것이다.

최근 몇 년 사이, 학생들이 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 중에 사고를 많이 당하고 있다. 해병대 체험활동 중 파도에 휩쓸려 일어난 사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중에 일어난 체육관 붕괴 사고 그리고 이번 세월호 사고. 왜 자꾸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이런 일들은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라고 한다. 조금만 더 안전에 신경을 썼더라면 예방할 수 있었을 일들. 이제는 우리 사회도 자신이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고 원칙을 지키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이 하고 싶은 일 모두 할 수 있고, 친구들과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흔들리지 않고 피어나는 마흔은 없다

김병수(지은이)/ 프롬북스/ 2012

글 진주 가람초등학교 교사 박민정

‘마흔은 그냥 아픕니다. 웅하니 구멍이 난 것처럼 가을 한자락 바람에도 가슴이 시려웁니다. 돌아보면 소중한 것들을 곁에 두었기에 아프다는 말조차 할 수 없습니다. 마흔, 그것은 먹먹한 한숨입니다. 눈물이 뒤섞인 가슴을 들킬까봐 무서워 감추고 있는 시린 한숨입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고 피어나는 마흔은 없습니다. 고뇌의 소리를 내지 않고 살아가는 마흔은 없습니다.’ 우연히 서점에서 마주친 책, 『흔들리지 않고 피어나는 마흔은 없다』 표지에 새겨진 글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도 가지고,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아 기르고... 바쁘게 살았지만 마음은 아직도 변함없이 이십대인데, 어느새 내 나이는 서른을 훌쩍 넘겨 마흔을 바라보게 되었다. 중년의 시작으로도 본다는 마흔... 그리 반가운 단어는 아니지만 어짜피 내게 올 나이라면 멋지게 맞이하고 싶다. 마흔이 되면 나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마흔이 되면 또 어떤 고민거리가 생길까? 신을 넘겼을 때 나는 남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비춰질까? 주위의 인생 선배들을 보았을 때 중년의 모습은 가지각색인 것 같다. 젊었을 때보다 좀 더 여유로지고 너그러워진 사람, 젊은 시절의 열정을 변함없이 그대로 지닌 사람, 자기관리와 일처리에 있어 더 철저해진 사람...

『흔들리지 않고 피어나는 마흔은 없다』의 저자 김병수는 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다. 작가는 이 책을 통해 중년을 맞이하며 느끼는 다양한 감정변화와 관련된 여러 사람들의 경험을 우리에게 전해준다. 중년이 되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는 사람, 몸과 마음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끼는 사람, 외로움을 느끼거나 우울증을 겪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중년이 되면 젊은 시절보다 마음이 더 튼튼해질 것이라 예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고 한다. 그래서 작가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어쩔 수 없이 일들에 대해 조금 더 담대해질 필요가 있다고 한다.

프롤로그에서부터 에필로그까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다양한 감정에 대해서 처음에는 쉽게 공감할 수 없었지만 내 어머니의 지난 삶을 떠올려보니 어렵פות이 이해되기도 하였다. 이 책을 읽는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part2. 중년의 길목에서 깨닫는 소중한 것들」이다. 특히 ‘지혜는 나이와 관계없다’는 문구에 크게 공감했다.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편협한 자기주장만 고집하거나 남에 대한 배려가 없는 노인을 볼 때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지혜로운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종종 했었다.

어떻게 하면 남에게 존경받고 내 스스로도 행복한 중년을 맞이할 수 있을까? 작가는 지나간 시간을 뒤돌아보며 행복한 삶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중년에게 남은 숙제라고 한다. 이 책을 통해 미리 접해본 다양한 감정경험 덕분에 나는 중년이 되었을 때에도 여전히 행복할 것 같은 기분 좋은 예감이 든다.



글 사천고등학교 교사 황진기

전통 장부짜임을 적용한 과학완구 발명동아리

1. 운영 목적

선조들이 생활용품으로 사용해 왔던 각종 문갑이나 한옥에 많이 적용되고 있는 장부짜임의 종류를 살펴보면 그 종류가 100여 가지 이상이나 된다. 이러한 것을 모두 배운 후 필요로 하는 생활 용품을 제작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므로 같은 특성별로 정리해서 묶어보면 크게 사괘장부(사계맞춤), 연귀삼방장부(삼방연귀맞춤), 연귀제비촉장부(삼방제비촉연귀맞춤), 문틀장부(석장장부연귀맞춤)의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를 제대로 활용 및 응용하면 거의 대부분의 생활 가구는 직접 제작할 수 있다. 이러한 전통장부의 원리를 이용하여 사천고 발명동아리는 십자반턱장부짜임 기법을 적용한 과학완구를 만들어 보는 활동과 직접 만든 과학완구를 가지고 놀면서 과학적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발명동아리를 운영하였다.

2. 운영 내용

십자반턱장부짜임을 이용한 완구 제작을 하는 과정은 도면작성, 재단하기, 가공하기의 단계로 이루어지며 만든 완구를 이용해 과학적 원리를 탐구하는 활동을 하였다.

가. 도면 작성

- 1) 십자반턱장부짜임을 이용한 과학 원리가 적용된 완구를 제작하기 위한 도면을 작성한다.
- 2) 도면 작성 시 유의할 점은 공구 및 재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제작이 가능할 것인가를 고려하여야 한다.

나. 재단하기

- 1) 작성된 도면에 따라 20mm×30mm×100mm(물푸레나무 2개)에 칼을 이용하여 먹금을 그어 재단을 한다.

다. 가공하기

- 1) 재료에 먹금 긁기가 끝났으면 $\phi 3$ 드릴로 안쪽 모서리 부분에 구멍을 뚫는다.
- 2) 띠톱, 정밀회전톱, 스카시톱 등을 이용하여 띠형 홈을 파낸다.(2개)
- 3) 가공된 2개를 결합하여 원활하게 결합이 잘 되면 결합된 상태로 4곳에 10×7.5 위치에 먹금을 그은 후 $\phi 6.3$ 드릴로 구멍을 뚫는다.
- 4) $\phi 5$ 대나무 봉을 끼운 끝 부분에 약 5~10 깊이로 $\phi 6.3$ 물푸레나무 봉을 타이트하게 끼운 후 디스크 샌드를 이용하여 마무리한다.

라. 놀이를 통한 과학원리 탐구하기

제작이 완료되면 안쪽에 끼워진 대나무 봉을 모두 안쪽으로 들어가게 한 후 십자로 결합한다. 결합 후 좌우로 살짝 흔든 후 다시 분해하여 살펴본다. 아마 빠지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분해할 수 있을지 아이디어를 내어본다. 바닥에 놓고 가운데 부분을 엄지와 검지로 잡은 후 힘차게 회전을 시킨 후 다시 뽑아 본다. 부드럽게 뽑힐 것이다. 회전 시킨 후 뽑히게 된 이유를 알아본다. 이러한 놀이기구에 원심력이 적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운영 결과

전통 장부짜임을 적용한 과학완구 발명 동아리 운영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교육적 효과가 있었다.

첫째, 조상들의 생활생활 가구에 적용된 과학적이고 정확한 제작방법을 이해하며, 전통가구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둘째, 어린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하나를 선택하더라도 과학적 원리가 적용된 것을 이용하게 되면 과학에 대해 보다 친근함을 느낄 수 있으며 우리의 모든 생활에 녹아 있는 과학을 자신도 모르게 응용하게 될 것이다.

셋째, 우리 선조들의 전통 장부짜임의 우수성을 인식하고, 나아가 우리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바른 인성 함양 및 정교성과 인내심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본교의 발명동아리 활동은 생활밀착형 활동을 하고 있는데 대해 자긍심을 가지며, 우리의 전통 문화를 과학적으로 계승·발전시키려는 태도를 함양시켰다. 동아리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전통을 알고 사랑함과 더불어 과학 원리를 탐구할 수 있었다. 정교한 제작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의 집중력과 인내심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과학완구 제작에 대한 성취감을 맛 볼 수 있어 더욱 의미 있었다.





부모로 산다는 것

제니퍼 시니어 저/이경식 역 | RH코리아 | 2014년 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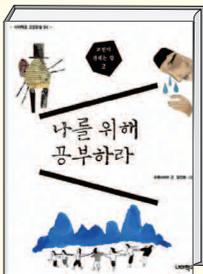
이 책은 현대 가족의 역설에 대한 해답을 찾아 떠나는 도발적인 여행이다. 아이를 키운다는 것, 부모가 된다는 것, 결국 행복이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추적하는 이 책은 역사, 심리학, 문화인류학, 사회학, 경제학, 철학으로 풀어내는 가족 관계에 대한 방대한 통찰이다. 그리고 엄청나게 시끄럽고, 기대와 후회가 반복되고, 상실과 사랑이 교차하는 가슴 뭉클한 우리의 사연들이 소개된다. 육아와 행복에 대한 잘못된 신화의 진실을 밝히는 책이자, 현대 부모의 정체성에 대한 탐구이고, 사랑의 의미를 재조명하는 책이다.



상처 주는 것도 습관이다

이임숙 저 | 카시오페아 | 2014년 3월

아이의 몸을 다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주 마음의 상처를 받으며 자란다. 그중에 가장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어머니 경우가 많다. 처음엔 왜 상처가 되는지 몰라서, 나중에는 상처 주는 줄 알면서도 습관이 되어서. 이 책은 '아이의 마음을 치유하는 최고의 치료사는 바로 엄마' 라는 면에 주목한다. 그리고 엄마가 아이의 마음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전문상담가의 비법을 조금 활용해볼 것을 제안한다. 하루 30분의 마음멘토링으로 아이는 자존감 높고 행복한 아이로 자라게 될 것이다. 아이를 너무나 사랑하지만 제대로 사랑할 줄 몰라 마음 아파하는 모든 엄마를 위한 책이다.



나를 위해 공부하라

김현식 저 | 올림 | 2013년 7월

학생들의 주 고민인 '공부'에 대해 생각하고 성찰하며 다잡을 수 있는 물음들을 담았다. 남의 시선이나, 다른 외적 조건이 아닌 온전히 나를 위한 공부가 진정한 공부임을 말하는 공자의 『논어』와 답답한 세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욕구와 감각과 관계를 바꾸라고 했던 카프카의 『변신』, 루소의 『고백록』, 루쉰의 『아침꽃을 저녁에 줍다』, 함께 공부하고 생활하며 영혼의 불꽃이 될 때 진정한 지혜, 철학이 삶으로 드러난다고 했던 플라톤 『편지』 등 다섯 이야기를 담아 학생들이 갖고 있는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와 압박을 벗어 날 수 있는 진정한 나를 위한 공부를 찾게 도와준다.



曉 座

缺月生殘夜	조각달 새벽녘 돌아나오니
清光能幾何	맑은 빛 능히 얼마나 가리.
艱難蹄小	겨우겨우 작은 피를 기어 올라와
無力度長河	긴 강은 건널 힘이 없다네.
萬戶方 睡	세상은 단잠에 빠져 있건만
孤羈獨浩歌	나그네는 혼자 깨어 노래한다오.

<새벽에 앉아서 - 정약용>

청계 차일수 / 창원 진전초등학교 교장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한국사 교수·학습 안내

출제 방향

2017학년도 수능 한국사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국사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학교에서 학습한 지식과 사고력을 평가합니다.

-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갖추었는지 평가하기 위해서 한국사의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됩니다.
- 단원·시대별로 편중되지 않게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이 고르게 출제됩니다. 단원 통합적인 문항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 교육과정상 중요한 내용은 이미 출제가 되었더라도 다시 출제될 수 있습니다.

문항 수준

절대평가의 취지에 맞추어 일정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평이한 문항이 출제되므로 학교 수업에 충실한 학생이라면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생님들은 수능을 대비해야 한다는 큰 부담감 없이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한국사 수업을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학생들은 학교 수업을 통해 기른 한국사에 대한 소양만으로도 시험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ne.go.kr>) 공지사항 3109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